

부모 공경에 대해

에베소서 6:1-3,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는 인간의 기본적 도덕이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인간 관계의 여섯 가지 계명들 중에서 첫 번째의 계명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는 사회에서 비교적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불효하는 자녀는 사회에서도 반항적이고 무질서한 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효도의 근거와 범위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교훈 하였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효도의 근거와 범위를 보인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선 효도의 근거를 보인다. 효도의 근거는 무엇인가? 효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다.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주신 법이다. 하나님께서는 효도를 명하셨다.

실상, 인간의 도덕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왜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가? 사람이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람이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람이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람이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람이 왜 탐욕을 품지 말아야 하는가? 사람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사람은 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칙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어디에 그것을 명하셨는가? 십계명(출 20장)에 그러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실상 도덕의 근거를 상실한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또한 효도의 범위를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지 말고 즉 죄 짓는 일 외에는 다 순종하라는 뜻이다. 부모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에는 우리는 부득이 부모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랑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0:34-37).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지 않으셨고 분쟁케 하려고 오셨으며 이 후부터 한 집에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고 말씀하셨고(눅 12:51-53),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눅 14:26).

부모 순종이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은 아니다.

효도의 방식

본문은 또한 효도의 방식을 교훈한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들은 우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것은 부모를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3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

님도 경외해야 한다.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한다.

신명기 27:16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15에서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21:17에서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9에서도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잠언 15:20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고 말했고, 잠언 20:20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기쁨과 행복]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말했다. 또 잠언 23:22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했고, 또 잠언 30:17은 “아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하였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잠언 1:8은 “내 아들이, 네 아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고, 잠언 13:1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했다. 신명기 21:18-21에는 한 무서운 명령이 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말과 행동에 잘못이 있을 때일 것이다. 부모도 인간이므로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해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의 반발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를 무시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가 잘못을 할 때라도 자녀들 앞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일은 피해야 하고, 둘이 있을 때 서로 충고하고 그것이 분명히 잘못이라면 자녀들 앞에서도 사과하는 것이 좋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답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잠언 10: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5: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17:25,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 23: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테전서 5:4에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교훈했고, 또 디모테전서 5:8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했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보답하고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인간의 바른 길, 옳은 길의 하나가 바로 효도이다.

효도의 복

본문은 효도의 복에 대해서도 증거한다. 인간 관계의 다른 계명들과 달리, 제5계명에는 복된 약속이 붙어 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리라.” 오늘 본문은 “네 생명이 길리리라”는 약속을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좀더 설명하였다.

‘잘 된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계명 순종은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포함한다. 이사야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라고 말씀하셨다(사 48:18).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마음의 평안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과 물질적 안정과 사회적 평안을 포함한다.

또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육신이 건강하여 오래 사는 복뿐 아니라, 참으로 오래 사는 것 곧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복을 포함한다. 영생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며 영생에 이를 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22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어머니에게 순종했던(룻 3:5) 모압 여인 룯은 장차 다윗의 증조부가 될 아들 오벳을 낳는 복을 얻었고(룻 4:17), 자기를 딸같이 길러주었던 부모 같은 사촌오빠에게 순종했던(에 2:10, 20) 에스더는 파사 나라의 왕후가 되었고 유다 나라를 멸망의 위기에 서 구원하는 믿음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에스더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보답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현세에서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고 또 복된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